

http://dx.doi.org/10.17703/JCCT.2021.7.3.7

JCCT 2021-8-2

간호대학생의 결혼의식, 직업의식, 양성평등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marriage consciousness, occupational consciousness,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on the childbirth will of nursing students

강은희*, 김미영**, 변은경***

Eun Hee Kang*, Mi Young Kim**, Eun Kyung Byun***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결혼의식, 직업의식, 양성평등의식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출산의지 조절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참여자는 B시의 간호대학생 2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ANOVA, 피어슨 상관계수,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결혼의식은 3.43 ± 0.36 점이었고, 직업의식 3.30 ± 0.47 점, 양성평등의식 3.85 ± 0.37 점, 출산의지는 3.48 ± 0.42 점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출산의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연구대상자의 출산의지는 결혼의식($r=.260, p<.001$), 직업의식($r=.143, p=.026$), 양성평등의식($r=.263, p<.001$)과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결혼의식은 직업의식($r=.279, p<.001$)과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결혼의식($\beta=.215, p=.001$), 양성평등의식($\beta=.239, p<.001$)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11.9%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간호대학생의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 결혼의식, 직업의식, 양성평등의식, 출산의지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marriage consciousness, occupational consciousness, and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on childbirth will in nursing students and to provide the basic data of to control childbirth will. Data were collected from 242 nursing students in B city and analyzed by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WIN 21.0. The average of marriage consciousness was 3.43 ± 0.36 , the average of occupational consciousness was 3.30 ± 0.47 , the average of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was 3.85 ± 0.37 , the average of childbirth will consciousness was 3.48 ± 0.42 . The childbirth will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The study subject's childbirth will was correlated with occupational consciousness($r=.279, p<.001$), occupational consciousness($r=.143, p=.026$),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r=.263, p<.001$), and marriage conscious was correlated occupational consciousness($r=.279, p<.001$). The factors influencing childbirth will of the study subjects were marriage consciousness($\beta=.215, p=.001$),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beta=.239, p<.001$), and the explanatory power of these variables was 11.9%. According to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confirm the effects of developing an intervention program and applying this program to improve the decisions of nursing students concerning marriage and having children.

Key words : Marriage consciousness, Occupational consciousness,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Childbirth will

*정희원, 경남정보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제1저자)
**정희원, 경남정보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정희원, 경남정보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공동저자)
접수일: 2021년 5월 21일, 수정완료일: 2021년 7월 15일
게재확정일: 2021년 7월 25일

Received: May 21, 2021 / Revised: July 15, 2021

Accepted: July 25, 2021

*Corresponding Author: miyoungk@eagle.kit.ac.kr
Kyungnam College of Information & Technology

1.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은 타인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진출을 위한 결정을 하며 경제적인 자립의 준비 등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위치나 역할을 재인식하고 통합함으로써 성인으로서의 자질을 형성해 나간다[1]. 또한, 대학시기는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정서적으로 성숙해지며 이성과의 친밀감을 구축해 나가는 시기로 결혼에 대한 욕구도 구체화되는 예비 부모세대이다[2].

예비 부모세대인 대학생의 출산에 대한 인식은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 이들의 가치관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 요구되며, 이들에 대한 분석은 향후 저출산 관련 정책에 활용될 수 있다[3].

대학생 시기 남녀가 함께 부모가 되고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들 중 여성이 임신, 출산, 자녀양육에 있어 더욱 큰 부담을 느끼는 것이 현실이다[4]. 실제 이경숙 등[5]의 여대생들의 저출산 원인에 대한 연구에서 자녀양육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과 더불어 여성 자신의 자아실현과 자기 개발욕구 증가 및 사회경제활동 참여 증대로 인해 부모역할 측면에서 여성이 겪는 어려움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을 보고하고 있다.

저출산의 문제는 OECD 국가 대부분이 겪고 있는 공통적 현상이지만, 우리사회의 경우 불과 20년 만에 세계 최저의 초저출산 사회를 유지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6].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98명으로[7] 이러한 저출산 현상은 사회, 문화, 경제에 큰 변화를 미칠 수 있으며, 경제의 성장 잠재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8].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결혼연령의 증가는 출산연령의 증가로 이어지고, 출산율 저하의 문제로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결혼의식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최근 결혼의식은 개인주의 성향에 따른 개인의 자아성취와 행복 만족도가 더욱 중요해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다[8]. 특히, 대학생은 각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을 중요시하며 비혼이나 만혼 혹은 무자녀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9]. 즉, 예비부모로서 올바른 태도와 가치관을 갖고 자질함양에 힘써야 하는 여대생이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낮고 자녀에 대한

부정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머니의 미숙한 역할 수행으로 인한 자녀교육의 질 저하 등을 야기하는 가정적 측면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혼 가치관은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며, 저출산의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10].

직업의식은 사회구성원들이 직업에 대한 경험과 사회적 지위와 같은 요인에 기초하여 형성되는데 이는 직업에 대한 가치관, 진로에 대한 성숙도, 취업에 대한 인식, 일에 대한 지양과 같은 다양한 의미를 포함한다[11]. Han[11]은 직업이 없는 여성보다 직업이 있을 때 출산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며, 가사부담 및 양육부담이 높을수록 출산의지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13].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직업은 경제적인 이득을 주어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도 하지만, 여성이 직업을 가질 때 가사와 양육의 부담 또한 갖게 되므로 직업은 대상자에 따라 출산을 촉진할 수도 있지만, 직업으로 인한 양육의 제반 여건이 지원되지 않으면 출산을 미루거나 기피할 수 있다. 이러한 직업의식은 예비취업인 여대학생에게는 자신의 취업 유무와 동시에 결혼과 출산에 대한 미래를 설계하는데 영향을 준다.

최근 대두되는 양성평등의식(gender equality consciousness)은 여성과 남성에게 대한 능력 및 속성 그리고 역할에 대하여 성차별적 의식을 가지지 않으며, 특정성에 대한 편견에서 자유롭고 여성의 권리와 인권에 반하는 차별적인 행동을 승인하거나 채택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에서 성차별을 수정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태도이다[14, 15, 16] 이러한 양성평등의식은 대학생들에게 중요한 발달과업이라 할 수 있다. 대학생은 가정과 사회에서 역할을 준비하고 사회 진출을 앞두고 있는 시기이기에, 양성평등적인 성 역할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하는데 중요함을 보고하고 있다[17, 18]. 대학생 시기에 정립된 올바른 양성평등의식은 과거 전통적인 성역할에서 벗어나 출산과 양육이 남녀 공동의 것으로 인식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연구 대상으로는 기혼 성인과 미혼에 관한 연구가 많았으며[19, 20] 출산율 하게 될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소수이며[21, 22], 특히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연구 대상이 기혼여성, 미혼, 남·녀 대학생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23, 24, 25], 여대생이 주요 대상인 연구는 소수였다[26].

대학생 시기는 예비 부모로서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이 필요하며, 성인기로서 정서적 경제적 독립을 위해 직업을 준비하고 갖는 이 시기에 출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Kim[27]의 보건의료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자 대학생에 비해 여자 대학생의 비혼 비율이 월등히 높아 향후 낮은 출산으로 이어짐을 보고하고 있다. 이는 여자 대학생의 경우 출산과 양육과 관련하여 결혼에 대한 부담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미래의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의 경우 여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향후 전문직군으로 사회활동을 하게 될 것을 감안할 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결혼의식, 직업의식, 양성평등의식과 출산의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의미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추후 결혼율 상승과 출산 문제 해결방법을 위해 미래 경제활동의 주축이 되고, 예비부모가 될 간호여대생이 가지는 결혼의식, 직업의식과 양성평등의식의 정도를 살펴보고,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하여,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 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여대생의 결혼의식, 직업의식, 양성평등의식 및 출산의지 정도와 출산의지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며 출산의지를 높이기 위한 중재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과 대학생의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B시에 소재한 2개 대학의 간호학과 학과장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자료수집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연구에 참여한 간호대학생 중 여대생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 연구참여자의 권리, 익명성 보장 등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참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알리고 동의서에 서명 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G*Power 3.1.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표본 수를 산출한 결과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15, 예측변수 15개로 하여 산출한 결과 필요 대상자 수는 194명이었다. 자료수집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대학의 대면수업 허용 기간인지를 확인하고 2020년 9월 1일에서 9월 18일까지 진행되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높은 탈락율을 고려하여 설문지 250부를 배부하였으며, 응답이 불성실한 8부를 제외한 242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결혼의식

결혼의식 결혼관은 결혼과 배우자 선택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으로 본 연구에서는 Kim, Sun & Kim[28]가 제작한 미혼여성들의 결혼 및 가족의식 조사도구를 Lee[29]이 수정하여 재구성한 설문지를 Yeo[30]이 사용한 도구이다. 이 도구는 총 20문항으로 낭만적 결혼관 5문항, 소극적 결혼관 6문항, 보수적 결혼관 3문항, 배타적 결혼관 2문항, 적극적 결혼관 2문항, 도구적 결혼관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요인이 의미하는 결혼가치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Yeo[30]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62$ 였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64$ 이었다.

2) 직업의식

직업의식은 개인의 직업에 대한 태도와 행위를 포함한 개인의 정서적 역량의 범주로 가치와 태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31]. 여대생의 직업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Kim, Ma[32]의 연구에 사용된 총 12문항으로 구성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의 각 하위 영역별 문항 수는 진로성숙도 5문항, 가족지향성 4문항, 일 지향성 3문항으로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의 범위는 12점부터 60점까지이다. 총점이 높을수록 직업의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 Ma[32]의 연구에서 진로성숙도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7$, 가족지향성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1$, 일 지향성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58$ 이었다. 본 연구에서 직업의

식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1$ 이었다.

3) 양성평등의식

양성평등의식은 남성과 여성 중 어느 특정한 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이나 고정관념, 차별적 태도를 가지지 않고 생물학적 차이를 사회문화적 차이로 연결시키지 않으며 남녀 모두에게 잠재되어 있는 능력이 같고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33].

본 연구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개발한 표준화된 청소년용 남녀평등의식검사(KGES-A)[34]의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양성평등의식은 가정생활, 직업생활, 학교생활, 사회문화 생활에 각 5문항씩 총 20문항 6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Kim & Lee[3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0$ 였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1$ 이었다.

4) 출산의지

출산의지는 향후 자녀의 출산가능성에 관한 의사를 의미하며[23], 본 연구는 Park[23]의 도구 23문항에서 개인적인 요인 문항 7개를 제외한 가족적 요인 3문항, 경제적 요인 6문항, 정책적 요인 7문항의 총 16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Park[23]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71$ 이었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69$ 로 나타났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 방법은 SPSS Win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①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② 연구대상자의 결혼의식, 직업의식, 양성평등의식, 출산의지는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을 산출하였다.

③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혼의식, 직업의식, 양성평등의식, 출산의지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t-test와 ANOVA를 이용하고 사후 분석을 위해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④ 연구대상자의 결혼의식, 직업의식, 양성평등의식, 출산의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⑤ 연구대상자의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1>. 23세 이하 74.4%, 24~27세 14.0%, 28~30세 11.6%이고 미혼 여대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년은 2학년이 32.2%로 많았고 그다음으로 3학년이 28.9%로 나타났다.

종교에서는 '유'가 78.1%로 가장 많았으며, 형제 수는 1명이 50.4%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은 '중'이 64.5%이고 전공 선택 동기는 '졸업 후 취직이 잘되므로'가 48.8%이고 성격은 긍정적이 85.1%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대학생할 만족도는 만족이 50.0%이고 보통이 45.9%로 그 뒤를 이었다. 학업생활 만족도는 보통이 48.8%이고 만족이 43.8%로 보였다. 평균 성적은 3.0~3.9가 66.5% 가장 많았고, 2.9 이하는 25.2%로 나타났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24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N=24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Age (year)	<23	180	74.4
	24-27	34	14.0
	≥28	28	11.6
Grade	1st	57	23.6
	2nd	78	32.2
	3rd	70	28.9
	4th	37	15.3
Religion	No	53	21.9
	Yes	189	78.15
Number of sibling	No	25	10.3
	1	122	50.4
	≥2	95	39.9
Economic status	High	37	15.3
	Middle	156	64.5
	Low	49	20.2
Major selection	according to aptitude	85	35.1
	according to grades	11	4.5
	recommendation	28	11.6
	for employment	118	48.8
Character	positive	206	85.1
	negative	36	14.9
Satisfaction of college life	Good	121	50.0
	Moderate	111	45.9
	Not good	101	4.1
Satisfaction of academic life	Good	118	48.8
	Moderate	18	7.4
	Not good	61	25.1
Average rating	≤2.9	61	25.1
	3.0-3.9	161	66.3
	≥4.0	20	8.2

III. 연구결과

2. 대상자의 결혼의식, 직업의식, 양성평등의식, 출산의지의 정도

본 연구 대상자의 결혼의식, 직업의식, 양성평등의식, 출산의지의 정도는 다음과 같다<표2>. 결혼의식은 평균 3.431±.36점이며, 직업의식은 평균 3.30±.47점으로 나타났다고 양성평등의식은 평균 3.85±.37점이고 출산의지 평균은 3.48±.42점이었다.

표 2. 대상자의 결혼의식, 직업의식, 양성평등의식, 출산의지의 정도(N=242)

Table 2. Degree of Marriage consciousness, Occupational consciousness,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Childbearing willingness(N=242)

Variable	M±SD	Min	Max
Marriage consciousness	3.43±.36	2.30	4.75
Occupational consciousness	3.30±.47	2.25	5.00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3.85±.37	2.90	4.60
Childbirth will	3.48±.42	1.81	4.75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혼의식, 직업의식, 양성평등의식, 출산의지의 차이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혼의식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혼의식은 ‘학업생활만족도’(F=3.073, p=.048)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연령, 학년, 종교, 경제적 수준, 전공 선택 동기, 성격, 평균성적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업의식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업의

식은 ‘학년’(F=4.837, p=.003), ‘형제 수’(F=3.161, p=.044), ‘전공선택 동기’(F=14.127, p<.001), ‘성격’(F=3.106, p=.002), ‘대학생활만족도’(F=13.689, p<.001), ‘학업생활만족도’(F=14.315,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직업의식은 4학년(3.56)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형제수에 따른 직업의식은 무(3.48)인 경우가 2명 이상(3.33)에 비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전공선택동기에 따른 직업의식은 적성과 흥미가 맞아서(3.54) 선택한 경우가 졸업 후 취직이 잘 되므로(3.18), 부모나 친척의 권유(3.07)에 의한 것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성격에 따른 직업의식은 긍정적(3.34) 성격이 부정적 성격(3.08)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만족도에 따른 직업의식은 만족한 대상과(3.44) 불만족한 대상(2.91)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업생활만족도에 따른 직업의식은 만족한 대상이(3.47) 보통(3.18)과 불만족한 대상(3.06)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 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연령, 종교, 경제적 수준, 평균 성적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성평등의식의 차이에서 ‘학년’(F=3.098, p=.028), ‘경제적 수준’(F=4.263, p=.01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연령, 종교, 형제수, 전공선택 동기, 성격, 대학생활 만족도, 학업생활 만족도, 평균성적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출산의지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출산의지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혼의식, 직업의식, 양성평등의식, 출산의지의 차이(N=242)

Table 3 Difference of Marriage consciousness, Occupational consciousness,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Childbearing willingn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N=242)

Characteristics		Marriage consciousness				Occupational consciousness			
		M±SD	t/F	p	Scheffe	M±SD	t/F	p	Scheffe
Age (year)	<23	3.42±.36	.674	.511		3.32±.47	2.443	.089	
	24-27	3.50±.34				3.31±.44			
	≥28	3.43±.40				3.12±.44			
Grade	1st ^a	3.42±.30	.275	.843		3.25±.47	4.837	.003	c,a,b<d
	2nd ^b	3.43±.41				3.27±.41			
	3rd ^c	3.46±.33				3.23±.48			
	4th ^d	3.40±.40				3.56±.50			
Religion	No	3.41±.35	-.561	.575		3.36±.48	1.110	.268	
	Yes	3.44±.37				3.28±.46			

Effect of marriage consciousness, occupational consciousness,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on the childbirth will of nursing students

Number of sibling	No ^a 1 ^b ≥2 ^c	3.60±.34 3.42±.35 3.41±.38	2.841	.060		3.48±.56 3.24±.46 3.33±.45	3.161	.044	b<a
Economic status	High Middle Low	3.40±.37 3.43±.37 3.47±.33	.519	.596		3.39±.48 3.32±.47 3.17±.42	2.708	.069	
Major selection	according to aptitude ^a according to grades ^b recommendation ^c for employment ^d	3.49±.39 3.34±.42 3.36±.28 3.42±.35	1.423	.237		3.54±.48 3.25±.36 3.07±.32 3.18±.43	14.127	.000	c,d<a
character	positive negative	3.44±.36 3.38±.38	.943	.346		3.34±.46 3.08±.45	3.106	.002	
Satisfaction of college life	Good ^a Moderate ^b Not good ^c	3.47±.41 3.38±.31 3.53±.24	2.398	.093		3.44±.51 3.18±.37 2.91±.47	13.689	.000	c<a
Satisfaction of academic life	Good ^a Moderate ^b Not good ^c	3.49±.43 3.37±.30 3.48±.22	3.073	.048	n/a	3.47±.51 3.18±.38 3.06±.41	14.315	.000	c,b<a
Average rating	≤2.9 3.0-3.9 ≥4.0	3.37±.30 3.45±.38 3.47±.39	1.312	.271		3.20±.41 3.32±.49 3.45±.42	2.393	.094	
Characteristics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Childbearing willingness			
		M±SD	t/F	p	Scheffe	M±SD	t/F	p	Scheffe
Age (year)	<23 24-27 ≥28	3.86±.39 3.84±.28 3.85±.30	.045	.956		3.45±.42 3.49±.42 3.61±.43	1.777	.171	
Age (year)	1st 2nd 3rd 4th	3.85±.38 3.86±.35 3.91±.35 3.70±.38	3.098	.028	d<c	3.39±.44 3.49±.38 3.53±.41 3.47±.51	1.193	.313	
Grade	No Yes	3.81±.36 3.86±.37	-.953	.342		3.54±.44 3.46±.42	1.330	.185	
Religion	No 1 ≥2	3.88±.37 3.87±.34 3.82±.40	.398	.672		3.60±.46 3.46±.43 3.47±.41	1.133	.324	
Number of sibling	High Middle Low	3.95±.29 3.80±.38 3.93±.31	4.263	.015	n/a	3.60±.46 3.46±.43 3.47±.41	1.133	.324	
Economic status	aptitude grade recommendation for employment	3.87±.34 3.75±.40 3.71±.41 3.88±.37	2.097	.101		3.54±.46 3.39±.39 3.44±.30 3.45±.42	1.085	.356	
Major selection	positive negative	3.85±.35 3.87±.45	-.309	.759		3.48±.43 3.49±.38	-.208	.836	
character	Good Moderate Not good	3.88±.33 3.80±.39 3.89±.42	2.076	.128		3.52±.42 3.43±.42 3.50±.43	1.136	.323	
Satisfaction of college life	Good Moderate Not good	3.87±.36 3.82±.36 3.93±.44	1.015	.364		3.49±.44 3.44±.41 3.64±.39	1.958	.143	

Satisfaction of academic life	≤2.9	3.82±.35	.450	.638		3.45±.40	.187	.829	
	3.0-3.9	3.87±.37				3.48±.44			
	≥4.0	3.83±.37				3.52±.41			
Average rating	≤2.9	3.82±.35	.450	.638		3.45±.40	.187	.829	
	3.0-3.9	3.87±.37				3.48±.44			
	≥4.0	3.83±.37				3.52±.41			

표 4. 대상자의 결혼의식, 직업의식, 양성평등의식, 출산의지의 상관관계(N=242)

Table 4. Correlation between Marriage consciousness, Occupational consciousness,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Childbirth will(N=242)

Characteristics	Marriage consciousness	Occupational consciousness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Childbirth will
	r(p)			
Marriage consciousness	1			
Occupational consciousness	.279(<.001)	1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099(.124)	.031(.634)	1	
Childbirth will	.260(<.001)	.143(.026)	.263(<.001)	1

표 5. 대상자의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N=242)

Table 5. Factors influencing the subject's Childbirth will(N=242)

Variable	B	SE	β	t	p
Constant	1.324	.365		3.621	<.001
Marriage consciousness	.251	.074	.215	3.406	.001
Occupational consciousness	.069	.057	.076	1.205	.229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277	.070	.239	3.939	<.001
Adj.R ² =.119, F=11.84(p<.001)					

4. 대상자의 결혼의식, 직업의식, 양성평등의식, 출산의지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결혼의식, 직업의식, 양성평등의식, 출산의지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표4>.

간호대학생의 결혼의식, 직업의식, 양성평등의식, 출산의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직업의식과 결혼의식(r=.279, p<0.01), 출산의지와 결혼의식(r=.260, p<0.01), 출산의지와 직업의식(r=.143, p=.026), 출산의지와 양성평등의식(r=.263, p<0.01)으로 나타났다.

5. 대상자의 출산의지에 미치는 요인

연구대상자의 결혼의식, 직업의식, 양성평등의식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다음과 같다<표 5>.

연구대상자의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결혼의식, 직업

의식, 양성평등의식을 설명 변수로 하였다.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확인한 결과 잔차의 분포는 정규성을 만족하였고, 독립변수 간의 다중 공선성을 검정하였을 때, 공차한계가 .914- .990으로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VIF)는 1.010 - 1.094로 나타나 모두 10보다 낮았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 검정인 Durbin-Watson의 통계량이 1.899로 2에 가까워 잔차의 자기상관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다중회귀 분석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F=11.84, p<.001), 수정된 결정계수(R²)는 .119로 설명력은 11.9%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결혼의식(β =.215, p=.001), 양성평등의식(β=.239, p<.001)으로 나타났다.

IV. 논 의

본 연구는 결혼을 상승과 출산 문제 해결방법을 위해 미래 경제활동의 주축이 되고, 예비부모가 될 간호대학생이 가지는 결혼의식, 직업의식과 양성평등의식의 정도를 살펴보고,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하여,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 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간호대학생의 결혼의식, 직업의식, 양성평등의식, 출산의지 정도를 타 연구와 비교 시, 연구 도구에 차이가 있어 비교에 한계는 있다. 그러나 각 연구의 도구가 동일한 척도인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다를 경우 동일하게 환산한 점수로 비교하여 최대한 유사한 상황에서 살펴보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연구결과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인 간호대학생의 결혼의식 정도는 평균 3.61점이었으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 & Byun[2]의 연구에서는 3.39점, Kim & Ko[35]의 연구에서는 2.94점(5점 척도)이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 & Hong[36]의 연구에서는 3.30점, Park & Je[37]의 연구에서는 3.91점으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비교한 연구들 간에 연구대상자와 결혼의식 결과에서 어떤 일관성을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결혼의식은 결혼으로 인해 사회활동에 제약이 많이 발생하는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38], 연구대상자의 성별이 중요한 연구결과의 변수가 될 수 있어, 연구 대상자의 성별을 고려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간호여대생의 직업의식 정도는 평균 3.23점이었으며, 본 연구결과 연구대상자의 성별이 여성이 다수인 것을 고려하여 비교하였다. 일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Kim[39]의 연구에서는 평균 3.22점이었으며, Park & Chun[40]의 연구에서는 평균 3.13점(5점 척도)으로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최근 여성의 사회적 지출이 확대되며 가족지향성보다는 일지향성적 성향을 보인다는[40] 결과와 유사하며, 직업의식이 중간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양성평등의식 정도는 평균 3.85점이었으며,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Park[18]의 연구에서는 평균 2.72점이었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 & Lee[42]의 연구에서는 평균 2.04점으로 다소 차이가 있

었다. 본 연구 대상자인 간호여대생이 일반 여대생에 비해 양성평등의식이 높게 나타난 것은, 간호여대생의 경우 전문직 직업군으로 일반 여대생에 비해 보다 남성과 여성에 대한 역할을 구분하는 직업적 차별이 낮은 결과로 사료된다. 양성평등의식이 높은 경우 결혼에 대해 긍정적이며,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은 출산의지를 높인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42] 이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간호 여대생의 출산의지는 일반적 특성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결혼의식, 직업의식, 양성평등의식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출산의지와 결혼관이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것과 유사하며[10] 결혼관이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친 Park & Byun[2]의 연구와 Jeong & Kim[41]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 결혼과 임신인식과도 유사하다. 일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출산의지에 대해 양성평등 의식과 결혼인식에 대한 상관이 높아[42] 양성평등의식과 결혼의식이 긍정적일수록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간호여대생의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결혼의식, 직업의식, 양성평등의식을 변수로 사용하였고, 이 중 결혼의식과 양성평등의식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설명력은 13.0%로 나타났다. 일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Jeong & Kim[42]의 연구에서도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양성평등의식과 결혼에 대한 인식으로 나타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그러나, 대학생은 자신의 자아실현과 행복한 삶을 중요시 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출산이 자신의 직업과 미래 자신의 자아실현에 장애가 된다면 출산의지를 낮춘다는 것을 고려할 때[43], 본 연구에서 출산의지에 대한 설명력에서 직업의식이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것과 유사하다.

간호여대생의 출산의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인 결혼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가족적인 측면에서는 전통적인 가부장적성 역할에서 벗어난 부부가 공통적으로 성의 조건과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요구와 상황이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일 지역 2개 대학 간호학과 여대생을 대상으로 하여 전체 간호대학생에 확대 해석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출산의지 정도를 확인하였으며,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결혼의식, 직업의식, 양성평등의식, 출산의지의 정도를 파악하고 간호대학생의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올바른 가치관정립 교육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결과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결혼의식과 양성평등의식을 확인하였고, 출산의지를 높이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일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전체 간호대학생에게 확대하여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반복연구와 출산의지를 높일 수 있는 중재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References

- [1] Jun MJ, Noh EK, "The Convergence Study effected of Adjustment to College life in Character,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health-related colleg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2018; 9(4):433-442. DOI : 10.15207 /JKCS .2018.9. 4.433
- [2] Park SH, Byun EK. "Factors influencing nursing students' intention of childbirth",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20; 21(1):103-111. DOI : 10.5762/KAIS.2020.21.1.103
- [3] Na YM, Kim MK, "The developing and effectiveness of pre-parents's education program for childbirth -friendly values formation", *Korean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13;7(2):90-121.
- [4] Kim SJ, "The Study on the Motivation to Become a Parent and the View on child rearing of Women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2017;11(6):529-564.
- [5] Lee KS, Jung SJ, Shin YJ, "A study on psychological variables related to low fertility",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2009;14(1): 93-108. DOI : 10.18205/kpa.2009.14.1.005
- [6] Cho YC. "A study on policy measures to solve the problem of low fertility"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Seoul. 2012.
- [7] Kim JY, Kim YC, "A study on the effect of marriage values and willingness to give birth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2019;9(12): 1025-1039. DOI : 10.35873/ajmahs.2019.9.12.090
- [8] Byun SJ, Hwang NH, "Plan for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 Issues and Challenges",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8;258:41-61.
- [9] Lee BR, "A Study of University Student's Consciousness of Marriage and Childbirth",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2012.
- [10] Shon KH, Kim NH, Lee ES, "The Study on the Family Strengths, Idea of Marriage and Childbirth Will of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2019;9(1):719-728. DOI : 10.35873/ajma hs.2019.9.1.072
- [11] Min JA. "Childbirth decisions in relation to awareness on the marriage and career among Korean college women", Master thesis, Dongduk women University. Seoul. 2015.
- [12] Han YO, "A Study of the Impact of the Rearing Support Policies on the Willingness of Childbirth", Doctoral dissertation, Kyungwon University. Seongnam. 2012.
- [13] Park WH, "The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s of birth will", Master thesis, Chosun University. Gwangju. 2011.
- [14] Ko YJ, "The effect of educational activity for the gender equality awareness on young children's sex-role", Master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2003.
- [15] Park KM, "The effects of gender sensitivity group counseling program on the self-efficacy development of male-female relationship and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of junior college students", Master thesis, Busan University. Busan. 2012.
- [16] Jeong JB, "The effects of role-playing on gender egalitarianism",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Daegu, 2005.
- [17] Kim JC, Baek YM, "The effects of gender sensitive group counseling on college students'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2009;10(1):271-284. DOI : 10.15703/kjc.10.1.200903.271
- [18] Park SH,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 between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and perceptions of marriage in university students—Based on university students in Gyeongsang-do region—”,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016;22 (6):207-232. DOI : 10.24159/joec.2016.22.6.207
- [19]Kong SY, “ The Influence of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n fertility of married women after the 1997 economic crisis”, *Health and Social Science*, 2009;25(1):33-56.
- [20]Kim NY, “A Study on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values and childbirth of the unmarried”, *Ewha Journal of Social Sciences*, 2011;26:5-24. DOI : 10.16935/ejss.2011.26.001
- [21]Kim BK, “Factors impacting on marriage and child birth of university students in daegu”, Master’s thesis, Yeungnam University, Gyeongsan, 2005.
- [22]Shon SY, Kim EJ, “A study of the gender and generation differences of the family values and perception of low fertility in Korean society”, *The Korean Journal of Humanities and the Social Sciences*, 2010;34(4):169-200.
- [23]Park YA, “The study on the effective flement of pregnancy will”, Doctoral dissertation, Hangsung University, Seoul, 2013.
- [24]Jang JK, “ A primary study on preference of fertility policies Based on perspectives of the marriage and having a child”,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2005; 43 (11): 165-183.
- [25]Sin KS, “Targeting On Daegu-Gyeongbuk Region University”, Master’s thesis, Yeungnam University. Gyeongsan, 2013.
- [26]Gu BH, “Effect of cultural awareness of female college students on future childbirth intention”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Seoul, 2018.
- [27]Kim HS, Park JS, Jo EJ, “The perceptions of marriage and childbirth of health care fields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 2011;5(2):131-146.
- [28]Kim HY, Sun BY, Kim SD, “A study on the late marriage and low birthrate of women”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10;18: 1-277.
- [29]Lee BR, “A study of university student’s consciousness of marriage and childbirth”,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Gyeongsan, 2012.
- [30]Yeo SN, “The effect of a wareness about the high school student’s marriage and childbirth to pre-parent’s role”, Master’s thesis, Dongshin University, Naju, 2014.
- [31]Park CS, Park HC, “Effects of employees’ work values and work ethics on perceptions of power dynamic and incom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2021;24(1):1-30.
- [32]Kim HK, Ma KH, “Vocational consciousness of college students and gender”, *Issues in Feminism*, 2005;5:189-237.
- [33]Jung HY, Chae JH, “Differences of gender equity education between the home economics and technology in the middle Schools – focusing on awareness of gender equity and the degrees of gender equity teaching practice”,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001;13(2):47-57.
- [34]Kim YH, Lee SY, “ Development of Korean Equalities Test for Youth”, *The Women’s Studies*, 2002;63:136-156.
- [35]Kim NJ, Ko SJ, “Factors influencing attitude toward marriag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8;19(4):178-185. DOI : 10.5762/KAIS.2018.19.4.178
- [36]Lee SY, Hong DAG, “The study on the idea of marriage and childbirth will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2014; 19(2):3-28.
- [37]Park MR, Je MJ, “The effect of view on marriage, children, psychosocial maturity, social pre-parental role recognition on marriage motivation in Colleger”,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9;19(1):316-328. DOI : 10.5392/JKCA.2019.19.01.316
- [38]Do MH,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awareness on marriage and childbirth to future marriage and childbirth”,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2011;16 (4):163-178.
- [39]Kim SS, “A study on the professionalism of female college student’s : based on the effect of gender awareness, home environment and working conditions”, Master’s thesis, Sooncheon University. Sooncheon, 2016.
- [40]Park EJ, Chun HM, “The effect of vocational consciousness on female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f marriage and childbirth”, *Korean association of family relations*, 2011;16(2) :87-105.
- [41]Jeong CS, Kim JS, “Impact of travel experience on employee’s happiness and motivations to work”,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2020;6(4):317-322.
- [42]Kim KS, Lee HJ, “The effects of marriage awareness, career awareness, and gender

equality to childbirth will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 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9; 19(11):77-98.

- [43]Song TY, “The effect of marital satisfaction for sex role Stereotype, Sex permission and self-efficacy of migrants married women”, Doctoral dissertation, Hanseo University, Seosan, 2017.